



조계종 자정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6월 30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한 제2회 무차대회에는 350여 이주민 불자들이 참여해 한국에서의 애환을 달렸다.

타국에서의 애환 달래... “함께 꿈 가꾸자”

‘결사추진본부’ 6월 30일, 이주민 불자들과 무차대회

“처음에 한국에 왔을때 한국이 기독교 나라인지 알았습니다. 아플때나, 힘들때 여러 도움을 준 곳이 바로 기독교 계열이었기 때문입니다. 긴 시간이 지나 오산에 불교계가 세운 행복한 이주민센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차투 씨

“한국에 온지 11년 동안 네팔 불자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잠서 쉬는 곳을 찾을때 어쩔수 없이 이웃종교의 시설을 추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분명 불자들이라도 그쪽 시설에 가면 있는 동안 예배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팔 나빈 법사

번 한국 땅에서 불안정한 신분과 부당한 처우로 고통받는 불자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자정과쇄신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6월 30일 서울 조계사에서 ‘이주민 불자들과 함께하는 시민초청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무차대회에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등 8개국 불자 이주민 350명이 초청돼 공감 토크콘서트, 장기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부 행사는 영상 ‘자전거 여행’ 상영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자전거 여행’은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편견과 임금체불 등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담은 애니메이션이다. 영상이 상영되는 동안 참석한 이주민들은 함께 박수치며 내용에 공감했다.

본 행사에서는 삼귀의에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주민 불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세계인들이 서로가 의지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꿈꾸신 세상”이라며 “사부대중은 이날 무차대회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살아가는데 발 벗고 나서자”고 격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격려사에 이어 결사추진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의 사회 아래 공감토크쇼가 진행됐다. 이주민들의 국적은 각기 달랐지만

8개국 350명 초청, 어울림 한마당

절 마당서 노래·토크·저녁공양

“힘들 때 이웃종교 도움 안타까워”

쉽터·한글학당·다문화 사찰 요청

이들이 한국에서 애로점은 대동소이했다. 이날 진행된 공감토크쇼에서 이주민들은 불교계 쉽터 및 이주민 사찰이 부족한 현실을 밝히고 불교계가 한글학당, 의료지원 등에 보다 앞장서줄 것을 요청했다.

공감토크쇼와 함께 이주민의 삶 사진 상영, 공감

명상도 진행됐다. 이어 참석대중들은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의 낭독 하에 이주민 불자와 함께하는 서원문을 낭독하며 다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대중들은 서원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주민을 대하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들의 피부색, 언어,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닌 다름이기에 인정돼야 한다”며 생명평화와 인간존엄의 발원이 이뤄지길 기원했다.

2부 행사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어 스님들이 직접 버섯 탕수육과 감자볶음 등 채식으로 된 식사를 이주민들에게 대접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중들은 함께 공양하며 서로 대화를 나눴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드시고 힘내십시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등 스님들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다. 자승 스님은 이에 앞서 참어 이주민들에게 각각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나눠주

도 했다.

몽고에서 온 한 여성은 한국 스님들에게 “몽고는 사망 후 화장을 하는데 유골을 분교로 가져갈 수 없다. 이 외에도 불교전통으로 하는 여러 풍습이 있는데 한국에서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며 불교계가 문제 개선에 도움을 주기를 간청했다.

캄보디아 노스 스완 씨도 “한국에 캄보디아 여성들이 결혼 이주민으로 많이 들어와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면 국적 등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며 “이들이 편히 쉬고 불교식으로 장례를 지낼 수 있는 다문화 사찰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오늘 자리는 이들 외에 시민들을 초청해 이들의 문제점을 알게 하는 것”이라며 “이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희망을 꿈꾸는 사회가 되기 위해 불교계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녁공양 이후에는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지기도 했다. 찬불가 기타그룹 메타, 팝송메들리, 아리랑 메들리를 비롯해 세계 각국 민요 공연이 펼쳐진 가운데 대회는 막을 내렸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주민들의 반찬을 배식하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서원문 낭독에서 승속이 하나돼 기원하는 모습



일감 스님 사회로 진행된 공감토크쇼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즐거운 대중가요 공연



대회에서는 각 나라 전통공연 등이 진행됐다.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들을 요익케 하고 있다.

수강생모집

알기 쉬운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허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지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짠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